

# 석유공사, 베트남서 유전 추가발견

2006년 Su-Tu-Nau 유전 1억2000만배럴 평가시추 ... 2009년 본격생산

석유공사 컨소시엄이 베트남에서 경제성이 높은 유전을 추가로 발견했다.

산업자원부는 9월1일 “한국석유공사와 SK가 참여중인 베트남 남부 바리아-붕타우 해상 15-1광구에서 양질의 원유층이 추가 발견됐다”고 밝혔다.

발견된 Su-Tu-Nau(갈색사자) 유전은 현재 하루 8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 15-1광구의 원유층으로 압력과 품질을 확인한 결과 생산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.

원유층은 석유공사가 2001년 이후 15-1광구에서 4번째로 발견한 것으로 매장량은 약 1억2000만배럴로 추정된다. 2006년에 평가 시추를 통해 경제성을 최종 확정된 후 2009년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이다.

석유공사는 베트남 석유가스공사(PetroVietnam), 미국의 Conoco 등 컨소시엄 공동 사업자와 함께 7월26일부터 탐사정 시추에 착수해 해저 3372-4376m의 기반암층에서 생산성 시험을 실시했다.

석유공사는 앞서 2001년 8월 발견에 성공한 Su-Tu-Den(흑사자) 유전에서 2003년 10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해 현재 하루 8만배럴을 생산하고 있고, 2001년 10월 발견한 Su-Tu-Vang(금사자) 유전도 2008년부터 본격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.

15-1광구 컨소시엄 지분은 한국의 석유공사와 SK가 각각 14.25%와 9%를 보유하고, 나머지는 PetroVietnam(50%), ConocoPhillips(23.25%), 프랑스의 Geo Petrol(3.5%)이 보유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9/05>